

# 대형사찰들 해외포교 팔 걸었다

‘세계화 시대에 국경은 없다’ 일부 조계종 교구본사와 대형 사찰들이 새해 들어 해외포교거점 확보를 통한 해외 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국내 포교에서 소위 ‘명문’으로 꼽히는 이들 사찰들은 그 명성에 걸맞는 포교 경험과 전략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포교 활성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찰은 간화선 수행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안국선원(선원장 수불).

지난해 4월 미국 뉴욕 중심가에 ‘뉴욕안국선원’을 개원한 안국선원은 간화선 관련 강좌나 수행 프로그램 등으로 현지인 포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며 세부 운영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뉴욕 안국선원은 선불교 중심의 해외포교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설립했으며, 안국선원 분원형태로 운영된다.

안국선원은 또 해외포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제선언위원을 중심으로 영문불서 발간, 법문 번역 등의 지원활동도 강화

## 美에 ‘뉴욕안국선원’ 개원·능인선원 대학 추진 구룡사 NGO ‘붓다월드’ 지구촌 누비며 구호활동

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0여 년 간 해외포교활동을 벌여온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주지 정우)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구룡사는 우선 지난해 출범한 NGO 단체인 ‘붓다월드’를 통해 지구촌 곳곳을 누비 예정이다. ‘붓다월드’는 인도네시아 네 팔 티베트 등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국가에서의 구호활동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한 후원활동에 적극 나선다.

또한 미국 원각사와 보광사, 호주 정법사, 인도 고려사와 녹야원, 설원사, 캐나다 대각사 등 직접 운영 또는 간접 후원하는 7개 사찰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해외포교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도 본격적인 해외포교에 뛰어든다. 해외포교

가운데에서도 미국 포교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종교법인을 설립하고 뉴욕에 사무실을 낸 영남불교대학은 올해 포교 전담 스님 파견과 법당 건립 등 현지 포교를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서울 능인선원(주지 지광)도 2008년 개교를 목표로 뉴욕에 불교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능인선원은 현재 뉴욕주에 2700평의 부지를 매입한 상태며, 올해 착공할 예정이다.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는 문도 스님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 LA 금오선원 불사를 공식 지원하면서 해외포교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한국전통사찰 건축양식으로 건립될 금오선원은 올해 착공에 들어가 내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법주사는 또 직접 운영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역시 문도 스님이 운영하고 있는 LA



간화선 포교에 나선 뉴욕 안국선원 전경.

반아사(와도) 관계를 유지하며 해외포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news.com

## 중국 정부 판첸 라마 띄우기?

### 국영TV 이례적으로 즉위식 방영 티베트서 열린 예불 1만여명 운집

중국 정부가 자신들이 내세운 제 11대 판첸 라마 기알첸 노르부(Gyalsen Norbu, 16)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AFP 통신은 최근 중국 언론보도를 인용해 지금까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기알첸 노르부가 즉위식을 가진지 열흘 만에 티베트 시가 체시 타쉬툽포 사원의 예불의식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중국정부의 허가 아래 열린 이날 행사에는 1만 여명이 운집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신화통신은 “판첸 라마가 티베트의 새로운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왔다”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 국

영 TV는 예외적으로 노르부의 판첸 라마 즉위식을 방영했다.

중국정부는 지난 1995년 달라이 라마가 인정한 게둔 최기 니마가 실종된 후 기알첸 노르부를 11대 판첸 라마로 내세웠다. 중국정부의 노르부 띄우기는 달라이 라마의 의견에 반하는 것으로, 달라이 라마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달라이 라마가 부시 미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티베트 자치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한 중국의 강경대응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상희 기자

## 300년된 대장경 목판영인본 등 중 민족문화공 불교유산 훼손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 있는 민족문화공(民族文化宮)의 불교문화유산이 지하 수장고를 지나가는 난방 파이프의 균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베이징의 ‘차이나 데일리’는 수장고 균열로 대장경 목판영인본이 2만여권의 고서들과 함께 물에 흠뻑 젖은 채 발견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훼손된 불교유물은 300년된 대장경 목판영인본으로 중국에서 몇개 남지 않은 귀중한 문화재이다.

‘차이나 데일리’는 민족문화공(民族文化宮)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약 4만 5000~6만쪽에 달하는 대장경 영인본이 이번 사고로 훼손됐다면서 일부 페이지는 보존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돼 내용을 인식해 필사할 수도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훼손된 고서들이 원형을 회복하는 데는 최소한 1~2년은 걸릴 것으로 민족문화공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민족문화공(民族文化宮)은 베이징 최대 문화가 시단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전시실과 도서관, 오페라 극장까지 구비하고 있다.

이은희 기자

## 불교 탄생지 보디가야서 세계평화발원 특별법회

인도와 해외의 불교승려 수백명이 불교의 탄생지 보디가야에서 세계평화발원 특별법회를 열었다.

이은희 기자

티베트 카구파의 정신적 지도자 제17대 카르마파(18)는 1월 7일 비하르주 주도 파르나로부터 약 110 km 떨어진 마하 보리사에서 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카구파의 연례행사인 문람 축제(Monlam Chenmo)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행사 관계자는 “세계평화발원 대법회가 보리수로 알려진 비하르주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희 기자

## 인도성지 아마라바티에 국제불교연구원 설립을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인도의 불교성지 아마라바티에 국제불교연구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1월 9일 인도의 불교성지 아마라바티에서 열린 티베트 불교 법회 칼라차크라에 참석한 달라이 라마(사진)는 “한 때 불교가 번성했던 아마라바티와 나가르주나 콘다에서의 고고학 연구와 발굴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마라바티는 뛰어난 학승들이 거주하면서 포교활동을 했던 곳이다.

한편, 달라이 라마는 이날 법회에서 “평화와 자비를 삶속에서 구현하는 불교야말로 치열한 경쟁세계에서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종교”라고 말했다.

이은희 기자



## 러 칼미크 공화국에 대형 불상

### 높이 9m 유럽최대...인근에 불교단지 조성

러시아 남부 칼미크 공화국이 대규모 불상을 건립하고 불상이 들어선 곳을 불교단지로 조성하는 등 불교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칼미크 공화국은 지난해 말 높이 9m의 유럽 최대 불상을 수도 엘리스타에 조성하는 한편 이곳을 대규모 불교단지로 만들었다.

이번에 조성된 불상은 좌상으로, 불상내부는 금속과 유리플라스틱으로 처리한 뒤 고풍을 도금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불상이 들어선 곳에 조성된 불교단지는 2000석 규모의 사원과 박물관, 콘서트홀, 도서관 등을 갖춘 유럽 최대 규모의 불교타운으로, 칼미크 정부는 이곳을 ‘유럽불교센터’로 명명했다.

칼미크 공화국은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불교 신자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정부차원에서 불교문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칼미크에서는 12월 26일이 켈룩과 창시자인 라마 쉐카파의 열반일이자 성도 일인 만큼 종교적 의미를 가진 민속명절이기도 하지만 해가 바뀌는 날이기도 하다. 이날에 맞추어 사원 개원식이 진행돼 일련의 축제행사가 줄을 이었다.

이은희 기자



불상을 봉안하고 법회를 연 모습.



이번에 조성된 칼미크 불교단지.

## 유대교회서 괴한 난동 불교회 폭력반대 성명

러시아 전통불교회와 1월 11일 모스크바 중심부의 한 유대교회에서 예배중 괴한들이 난입해 난동사건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불교는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전통불교회 회장 판디토 캄보-라마 담바 아우세예프는 12일 이타르타스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불교는 무고한 사람들의 회생을 내는 그 어떠한 폭력도 반대한다”며 “이와 같은 폭력은 면밀히 조사되어야 하고 범인은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후,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이은희 기자

## 티베트 염불송 대가 2년 연속 그래미상 후보

티베트 스님의 음반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그래미상 후보로 올랐다. 이번이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음반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티베트 염불송 대가인 타쉬 스님의 ‘티베트 승려의 노래(Tibetan Master Chants)’.

타쉬 스님은 음성에 놀랄 정도의 힘이 배어 있고 사원에서 염불소리를 직접 듣는 것과 같이 깊은 공명을 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셰라빙 사원 스님 등의 그래픽 합창음반이 최우수전통음악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이은희 기자

## 불교국 부탄, 군주제 폐지 2008년 민주선거 실시

폐쇄적이던 불교국가 부탄이 군주제를 폐지하는 등 ‘민주주의’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부탄 국왕은 오는 2008년 국왕직에서 퇴임하고 첫 민주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AFP통신은 많은 부탄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무관심하다는 현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민주주의가 도입될 경우 부패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은희 기자

## 태국-인도네시아 종교 초월해 협력 모색

불교국가인 태국과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종교를 초월해 협력관계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수실로 범방 유대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태국을 공식 방문한 데 이어 올해에 탁신 차나왓 태국 총리가 인도네시아를 답방해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은희 기자

본래면목이 완전한 황금빛 그대여

# 그대의 날개를 자유롭게 펼쳐라!

재가자를 위한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의 계승집 ‘황금빛 봉황이’ 출간

바닷물이 밀려간 뒤 아름다운 조약돌이 드러나듯 쾌활청량한 선어(禪語)들은 인위적인 문자냄새를 찾아볼 수 없다. 책에 담긴 실제의 묘용을 오득(悟得)해 모두 법계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

-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

많은 이들이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구(死句)를 들고 어리석은 의심을 하고 있으나, 누구나 올바른 길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본인이 옳다고 고집하는 데야 별 수 없지 않겠는가. 오히려 성을 내며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니 그 고집을 높이 살 만은 하나, 그렇다고 공부되어진 것은 또 무엇인가.



수불스님 계승집 안국선원 선원장

# 황금빛 봉황이

신국판 / 358쪽 / 값 10,000원